

주요용어 : 영적 안녕, 정신 건강

일부 간호대학생의 영적안녕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구*

이 화 인**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과학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은 생활의 향상과 편의를 가져다주었으나,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불행한 부산물을 낳았다. 즉 기계화에 밀려 인간은 정서적으로나 지적으로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놓여졌으며, 비인간화의 쓰라림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특성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발달 단계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은 특히 심리적인 혼란에 빠지기 쉽다. 대학생은 발달 단계상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 넘어 가는 단계로, 대학생의 특성인 긴장 상황 즉, 성인초기 과정 속에서 이루어야 할 발달 과업으로 취업 및 배우자선택 등의 역할로 정신적 딜레마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다.

간호철학의 측면에서는 인간을 영(spirit), 육(body), 정신(mind)의 통합된 존재로 본다.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통합된 유기체적인 존재이다(김수지 역, 1980). 세계보건기구는 근래에 와서 건강에 대한 정의에 '영적건강'개념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인간의 영적 차원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과 같은 다른 모든 차원을 연합시키는 핵심(central

core)이기 때문이다(Banks, 1980; 정정숙, 1999).

또한 인간을 총체적 존재(total being)로 볼 때 인간으로서의 전인성을 가꾸어주는 전인건강의 에너지가 바로 영성(spirituality)이고, 이는 종교적인 신념이나 행위를 의미하는 것 이상의 인간의 내적 자원의 총체로서 인간을 활기 있도록 돕는, 건강 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Hill & Smith, 1985). 특별히 간호학에서 인간의 영적요소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이 부분이 개인의 삶, 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적 본성이 최대로 개발된 영적안녕 상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절대자와 자신, 이웃, 환경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하여 현재의 환경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된다. 또한 영적안녕의 정도가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처지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내적인 조화와 평화, 감사와 만족, 타인과의 지지적인 관계 등으로 특징지어진다고 설명하였다(Voughan, 1986).

이러한 문헌을 근거로 영적안녕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일 것이며,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고도의 전문화된 기술중심의 치료형태의 변화에 발 맞추어 변화하는 간호 역할에 부합된 교육으로 인해 총체적인 교육적 배경보다는 기술적이고 기계적인 교육을 받아들이고

* 본 연구는 2001년 경인여자대학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경인여자대학 간호과 조교수

투고일 2001년 7월 2일 심사회의일 2001년 8월 6일 심사완료일 2002년 2월 18일

있다. 간호대학생은 과제인 국가고시 준비와 교과과정상 비중이 높은 실습 등으로 성인 초기에 겪어야 하는 발달 과업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상당히 많다. 또한 특히 실습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정신적인 어려움이 증가된다.

Ellison(1983)은 영적안녕과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 연구에서 자아존중과 같은 긍정적인 변수와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과 관계가 있다고 했으며 영적간호교육이 간호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김정남과 박경민, 1999), 영적안녕 정도와 영적간호 중요성 인식정도(김미향, 1997), 영적안녕과 영적간호수행과의 관계(오복자, 1996; 정정숙, 1999)등에 관한 논문이 있으며 영적안녕과 정신건강에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1학년때 예배와 기독교교문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는 간호학생들에게 영적안녕이 정신건강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므로써 추후 본 대학이 기독교 대학으로써 간호교육을 위한 내용과 방향성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일반적인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 상태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상관관계 연구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 상태를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분석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정신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분석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영적 안녕 (Spiritual Well-being)

- 이론적 정의 : 초월적인 에너지인 Spirit는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영적인 안녕(Well-being)은 건강의 근본이다(Stuart, Deckro & Mandel, 1989).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영적인 요구를 만족스럽게 충족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의미한다.

- 조작적 정의 : 영적 건강상태는 영적 건강을 나타내는 인지경험의 표현으로 Paloutzian & Ellison(1982)이 개발한 영적 안녕 척도로 20문항이며 5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영적 안녕 측정도구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2) 정신건강 (psychological health)

- 이론적 정의 : 정신건강은 다른사람과 조화되는 신체적, 지적, 정서적인 면에서 최적으로 발달된 상태로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발견하는 능력이며 더불어 정신과 신체의 역동적 관계까지를 포함한다
- 조작적 정의 : 고성희(1989)가 개발한 정신건강 측정도구 5점 척도로 19개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 건강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연구 제한점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연구이므로 자료수집 당일의 결석자나 휴학생의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일개 K대학 간호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영적안녕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재학생 1, 2, 3학년을 대상으로 1학년 66명, 2학년 67명, 3학년 89명으로 총 222명이었다.

2. 연구 도구

1) 영적안녕척도

Paloutzian과 Ellison(1982)이 개발한 영적안녕척도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평점 척도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안녕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0.87 이었다.

2) 정신건강척도

고성희(1989)가 개발한 정신건강 측정도구를 본 연구

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19문항으로 재편성 후 이용하였으며 5점 평점 척도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0.89이었다.

3. 자료 수집 절차 및 분석

조사기간은 2000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 까지였으며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를 얻은 후 설문조사 하였다. 설문지 240부 중 분석이 가능한 222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SPSS 프로그램에 의해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 1)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영적안녕과 정신건강은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영적안녕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는 t-test와 분산분석(ANOVA) 후 Scheffe test로 다중 비교하였다.
- 3) 영적안녕과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가설 검증을 위해 편상관관계(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총 222명으로 1학년 66명(29.7%), 2학년 67명(30.2%), 3학년 89명(40.1%)으로 3학년이 가장 많았다. 일반적 특성으로 학년, 종교, 경제상태, 거주형태, 부모생존, 부모결혼상태, 종교생활에 참여정도, 종교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 신체건강여부,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조사내용은 <Table 1>이다.

종교는 기독교 42.3%, 천주교 15.3%, 불교 7.7%,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이 34.7%이었으며, 가정의 경제상태에 대하여 전체학생의 85.1%가 '보통'이라고 답하였고, '매우 풍족하다' 2.3%, '여유있는 편이다' 5.9%, '어렵게 산다' 5.9%, '매우 어렵다' 0.5%로 응답하였다.

거주형태는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는 학생이 전체의 84.2%이었고, 친척, 친지의 집에서 하숙 및 자취를 하는 학생이 15.8%이었으며, 부모생존은 93.2%의 학생들이 양친이 생존해 있었으며, 편모 혹은 편부인 경우

6.8%이었다.

부모의 결혼 상태는 87.8%가 결혼이 유지되고 있으며, 사별 7.2%, 이혼 3.2%, 기타 1.8%이었다.

종교생활에 참여정도는 '참여하지 않는다'31.1%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25.7%, '가끔 참여한다'24.3%,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3.5%,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3%이었다.

종교 생활이 학생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이다" 31.5%로 가장 많았고, "크게 영향을 미친다" 22.5%,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6.2%, "적게 영향을 미친다" 16.2%,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 8.1%이었다.

신체건강은 '예' 라고 대답한 경우 95.9%로 대부분이었고, '아니오'라고 3.6%이었고, '무응답' 0.5%이었다.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14.9%, '만족한다'52.3%, '보통이다'25.7%, '만족하지 못함' 5.0%, '전혀 만족하지 못함' 0.9%, '잘모름' 1.4% 이었다.

2 영적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와의 관계

1) 영적안녕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

(1) 영적안녕과 종교간의 관계

종교에 따른 영적안녕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종교에서 기독교의 영적안녕은 평균 3.77 ±0.59, 천주교가 평균 3.71 ±0.56, 불교가 평균 3.24 ± 0.55, 무교가 평균 3.04 ±0.46 순으로 영적안녕은 종교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7.21, P=0.000). 이를 사후검정결과 영적안녕에서 기독교는 불교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Scheffe=0.53, P=0.006), 기독교는 무교와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Scheffe=0.73, P=0.000).

(2) 영적안녕과 학년간의 관계

학년에 따른 영적안녕정도는 <Table 2>와 같다.

3학년의 영적안녕은 평균 3.66 ±0.63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1학년이 평균 3.43 ±0.71 2학년이 3.29 ±0.52 순으로 영적안녕은 학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76, P=0.001). 이를 사후검정 결과 영적안녕에서 3학년은 2학년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ukey=0.37, P=0.001).

(3) 영적안녕과 신앙유무와의 관계

신앙유무에 따른 영적안녕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신앙을 가진자의 영적안녕은 평균 3.70±0.60,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의 영적안녕은 평균 3.40±0.46으로 영적안녕 점수는 대상자의 신앙유무에 따라서 통계적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22)

Variables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Grade	Freshman	66	29.7
	Sophomore	67	30.2
	Junior	89	40.1
Religion	Christianity	94	42.3
	Catholicism	34	15.3
	Buddhism	17	7.7
	None	77	34.7
Economic state	Very abundant	5	2.3
	Abundant	13	5.9
	Moderate	189	85.1
	Poor	13	5.9
	Very poor	1	0.5
Type of residence	Living with parent	187	84.2
	Without parent	35	15.8
Parent's survival	Both	207	93.2
	Only	15	6.8
Parent's marital status	Married	195	87.8
	Bereavement	16	7.2
	Divorced	7	3.2
	Others	4	1.8
Degree of religious life participant	Very active	5	2.3
	Active	30	13.5
	Moderate	57	25.7
	Occasionally	54	24.3
	None	69	31.1
Effect of religion on life style	Very effective	18	8.1
	Effective	50	22.5
	Moderate	70	31.5
	Poor effective	36	16.2
	None	39	17.6
Physical health	yes	213	95.9
	no	8	3.6
	no response	1	0.5
Satisfaction of nursing	Very satisfied	33	14.9
	Satisfied	116	52.3
	Moderate	57	25.7
	Unsatisfied	11	5.0
	Very unsatisfied	2	0.9
	None	3	1.4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5.33, P<0.000).

(4) 영적안녕과 종교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간의 관계
종교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영적안녕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영적안녕은 대상자의 종교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4.21, P<0.000).

영적안녕이 대상자의 거주형태, 경제상태, 부모결혼 상태, 종교생활에 참여도, 전공만족, 신체건강과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3.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와의 관계

1) 정신건강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

(1) 정신건강과 학년간의 관계

학년에 따른 정신건강정도는 <Table 3>와 같다.

3학년의 정신건강은 평균 3.80 ±0.50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1학년이 평균 3.65 ±0.58, 2학년이

<Table 2> ANOVA of spiritual well being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13)

Variables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Grade	5.23	2	2.61	6.76	0.001
Religion	24.20	3	8.10	27.21	0.000
Absence of faith	20.45	1	20.45	65.33	0.000
Economic state	1.96	3	0.65	1.61	0.188
Type of residence	2.55	6	0.42	1.04	0.397
Parent's marital status	0.44	3	0.14	0.36	0.779
Degree of religious life participant	1.56	4	0.39	1.80	0.129
Effect of religion on life style	12.31	4	3.08	14.21	0.000
Physical health	0.17	1	0.17	0.50	0.478
Satisfaction of nursing	3.36	5	0.67	1.93	0.91

<Table 3> ANOVA of mental health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15)

Variables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Grade	2.77	2	1.38	4.87	0.009
Religion	0.69	3	0.23	0.78	0.503
Absence of faith	0.30	1	0.30	1.03	0.310
Economic state	0.82	3	0.27	0.96	0.410
Type of residence	1.67	4	0.41	1.46	0.213
Parent's marital status	0.42	3	0.14	0.49	0.688
Degree of religious life participant	0.67	4	0.17	0.55	0.693
Effect of religion on life style	1.50	4	0.37	1.23	0.297
Physical health	0.21	1	0.21	0.94	0.332
Satisfaction of nursing	7.15	5	1.50	6.47	0.000

3.53±0.53 순으로 정신건강은 학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87, P=0.009). 이를 사후 검정결과 3학년의 정신건강은 2학년의 정신 건강 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ukey=0.27, P=0.006).

(2) 정신건강과 전공만족과의 관계

전공만족에 따른 정신건강 정도는 <Table 3>와 같다.

정신건강은 전공만족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47, P=0.000).

정신건강이 대상자의 종교, 신앙유무, 거주형태, 경제상태, 부모결혼상태, 종교생활참여정도, 신체건강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영적안녕과 정신건강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학년을 통제한 영적안녕과 정신건강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과 같다. 학년을 통제한 영적안녕과 정신건강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52$, $P=0.000$). 즉 학년을 통제하고 순수한 영적안녕과 정신건강간의 관계를 알 수 있었다.

<Table 4> Partial correlation controlled by grade between spiritual well being & mental health

	Spiritual well-being	Mental health
Spiritual well-being	1.000	0.5220*
Mental health	0.5220*	1.000

*P<0.01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

IV. 는 의

영적안녕이란 수직적 차원에서 신에 대한 관계를 인식하고, 수평적 차원에서는 삶의 의미 혹은 목적을 인식하거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는 개인적 성향이며 이는 즉 종교적 요소와 실존적 요소를 포함한다(Paloutzian & Ellison, 1982)고 설명하였다. 영적안녕은 인간의 영적 본성이 최대한으로 개발되도록 하는 능력으로 절대자(신, 신성, 초월적 존재), 최상의 가치, 자신, 이웃, 자연(환경)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통합, 질서, 조화, 평화를 이루는 안녕의 상태이다(Reed, 1992). 간호대학생의 영적안녕과 정신건강과의 상관관

제를 파악하고자 한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들의 지각된 점수는 3.48 ± 0.64 로 중상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최상순(1990)의 연구결과(평균 81.20)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오복자(1997)의 연구결과(평균 81.40)보다 높았다. 이러한 영적안녕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았을 때, '나는 삶이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믿는다'라는 문항이 최대 평점 5점 만점에 평균 3.927으로 가장 높았으며, '나와 신과의 관계는 내가 외롭지 않게 느끼도록 도와준다(3.900)', '나는 나의 삶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하여 안녕감을 느낀다 (3.886)', '나는 나의 삶이 꽤 충실하고 만족스럽게 느껴진다(3.877)', '나는 개인적으로 신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3.863)'가 그 다음으로 평균점수가 높았다. 한편, 평균이 낮은 문항은 '나는 신으로부터 많은 개인적인 힘과 지지를 얻지 못한다(2.840)', '삶이 많은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다(2.922)', '나는 신이 인간적이지 아니며 나의 일상생활에 관심이 없다고 믿는다(2.981)'이었다.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간호 대학생들의 영적경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즉 신과의 관계성에서 신은 인간을 외롭지 않게 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인간의 삶의 직접적인 적용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영적안녕이 있는 것은 신과 자신, 공동체, 환경과의 관계 안에서 비록 부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하여 긍정적인 느낌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Carson, 1989).

영적안녕의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와의 관계에서 본 연구에서는 종교, 신앙유무, 학년, 종교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복자(1997)의 암 환자의 영적안녕에 관한 연구에서 종교, 믿음정도, 교육수준 등의 차이를 보였던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적안녕을 측정 한 정정숙(1999)의 연구결과에서 영적안녕이 연령, 임상경력, 종류, 직책, 신앙생활 기간, 믿음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즉 기독교인과 천주교인인 경우 영적안녕 평균 점수가 불교인이나 무교인보다 매우 높았다. 또한 고학년으로 되면서 영적안녕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영적건강 및 안녕에 대한 간호 교육 교과과정을 신설하거나 개발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신건강은 만족스런 인간관계를 이루고 유지해 나가는 능력이며 곤란한 생활 조건에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하고 균형잡힌 통일 된 성격발달을 의미한다

(조은숙, 1983; 양석환, 1990).

이러한 정신건강을 정의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으로 6개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첫째 자신에 대한 의식적 접근(자기인식), 자아개념의 수정, 자아개념에 대한(수동적) 느낌과 정체감으로 구성되는 자신에 대한 태도, 둘째 성장발달과 자아, 셋째 내적 기준에 따른 행동의 조절과 독립적 행동과 관련된 자율성, 넷째 요구의 애목없는 지각과 공감 또는 사회적 감수성의 두 측면으로 구성되는 현실지각, 다섯째 사랑하는 능력, 사랑, 일, 오락의 적절성, 적절한 대인관계, 효율적인 상황의 필요충족, 적응능력과 효율적인 문제해결 등을 강조하는 환경지배 등이다(Jahoda, M., 1975).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정신건강 평균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3.67 ± 0.54 로 중상 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각 문항별 평균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나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4.321)'가 가장 높았으며, '나는 내 감정을 잘 조절하고 있다(3.963)', '나는 판단력이 정확하다(3.871)', '나는 나에게 대해서 긍정적이다(3.811)', '나는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3.789)'순이었다.

한편, 점수가 낮은 문항은 '나는 나에게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나는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발전시키려 한다(3.376)',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다(3.412)'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파악하였을 때 대학생인 대상자들이 아직까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으므로 가치관 성립이나 미래관에 대해서는 미약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감정적인 부분들 즉, 마음의 여유, 기쁨이나 자신을 사랑하는 부분들은 대체로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신 건강과 제 변수와의 관계는 학년과 전공만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상승할수록 정신건강 점수가 증가하였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신건강과 영적안녕 간의 상관관계는 두 변수의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되어진 학년을 통제한 상관관계는 매우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신건강은 종교, 신앙 유무 및 종교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는 직접적으로 영향받지 않았지만 영적안녕 상태와 정신건강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전공만족도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영적안녕에는 그다지 높은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신건강과 영적안녕의 상관성을 고려하였

을 때 영적안녕과 간접적인 관련성을 고려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영적안녕이 대상자의 종교, 학년, 신앙 유무, 종교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볼 때 본 대학 학생들이 종교를 갖는 비율이 65.3%로 타 대학에 비해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신앙생활을 격려하여 영적안녕 상태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인다.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영적안녕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영적안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즉 학업과 자신, 신과의 관계에서 통합성을 이룰수 있도록 돕는 신앙관을 교과과정에서 적용하는 것이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와 가치관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들에게 시행되어지고 있는 채플이나 신앙강좌의 개설 등의 방법은 대학생들의 신앙에 대한 자극을 제공할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영적 안녕상태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상자의 영적안녕,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영적안녕과 정신건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 등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대상자는 K대학 1, 2, 3학년 재학생들로 222명이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만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00년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영적안녕은 종교(F=27.22, P=0.000), 신앙유무(F=65.33, P=0.000), 학년간(F=6.76, P=0.001), 종교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F=14.21, P=0.000)에 따라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정신건강은 학년간(F=4.87, P=0.009), 전공만족(F=6.47, P=0.000)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대상자의 학년을 통제한 영적안녕과 정신건강간의 편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52$, P=0.000), 이는 영적안녕이 높을 수록 정신건강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안한다.

영적안녕상태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중재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기독교대학 학생과 비기독교대학 학생간의 영적 안녕상태와 정신건강상태를 비교하는 연구 역시 중요한 평가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한다.

References

Kim, J. N. & Park, K. M. (1999). The effect of spiritual care education on dying attitude chang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public health of Nursing*, 13(1).

Kim, M. H. (1997).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spiritual care important perceived degree. *Soon-chun college Journal*, 21(1).

Kim, S. G. (1980). *Spiritual nursing - Nurse's role*, Seoul, Tae-Han Nursing Association Publishing Co.

Byun, S. H. (1984). Psychological Health on the theological view. *Mental health Research* 2, Han-yang university institute for mental health.

Carson, V. B. (1989). *Spiritual Dimensions of Nursing Practice*, Philadelphia : W. B. Saunders company.

Cho, E. S. (1983). *Mental hygiene*, Seoul : Gyo-hak Co.

Choi, S. S. (1990). *A Correlational study on spiritual well-being, hop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of urban adult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Yen-sei University.

Ellison, C. W. (1983). Spiritual well-being: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1(4), 330-340.

Goddard, N. (1995). Spirituality as integrative Energy; a philosophical Analysis as Requisite Precursor to Holistic Nursing Practic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2, 808-815.

Gou, S. H. (1989). A study of mental health

- concept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from E-hwa women's university.
- Ha, Y. S. (1997). *Mental health Nursing*, Hyun-moon Sa publishing Co.
- Ha, Y. S. (1986). *Introduction Nursing*, Seoul : Shin-kwang publishing Co.
- Hill, L., & Smith, N. (1985). *Self - Care Nursing ; Promotion of Health*, Appleton - Century - Crofts, 186-216.
- Jahoda, M.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mental health(ED) Ruth, K.K, & Helen L, W. (1975). *Community programs for mental health*,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Jung, J. S. (1999).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 well-being of I.C.U. Nurse and spiritual care Intervention. *J. of the MARGAET PRITCHARD college of nursing*, 12(1).
- Liening, M (1978). *Spiritual needs of the psychiatric patient*, M Lois Dunlap (ed).
- Moberg, D. O. L. (1984). Subjective measures of spiritual well-being.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25(4).
- Oh, P. J. (1997).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in people with cancer *J. of Adult Nursing*, 9(2), 189-198.
- Oh, P. J. (1996).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 well-being of nurses and spiritual Nursing care. *Korean Nursing Research*, 5(2), 103-117.
- Paloutzian, J. F., & Ellison, C. W. (1982).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In L.A. Peplau and K.Perlman, *Loneliness: A sourcebook of the theory, research and therapy*. Wiley Interscience.
- Reed co. (1992). An emerging paradigm for the investigation of spirituality well-being, religiosity, hope, depression, and other mood states in elderly people coping with cancer. *Oncology Nursing and Health*, 15, 349-357.
- Ruth, I. S. (1979). "Guidelines for spiritual Assessment", *A.I.N.*, Sep.
- Stuart, E. M, Deckro, J. P, & Mandle, C. L. (1989). *Spiritual in health and healing : A clinical program*
- Vaughan, F. (1986). *The inward arc : Healing and wholeness in psychotherapy and spirituality*. Boston, New Science Library.
- Yang, S. H (1990). Correlation between Pathological phenomenon of education and physical, mental health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from Graduate School of Korean Teacher University.

- Abstract -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Lee, Hua-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and to provide baseline data of nursing education for the christian college.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0th to 30th September. 2000.

The subjects were 220 nursing students.

The instruments used for the study were the spiritual well-being scale developed by Paloutzian & Ellison (1982) and Gou Seong Hee's mental health (1989).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SPSS/PC.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ype of religion (F=27.22, p<0.000), absence of faith (F=65.33, p<0.000), grade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Kyung In Women's college

($F=6.76$, $p=0.000$), effect of religion on life style ($F=14.21$, $p=0.000$) and spiritual well-being.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ade ($F=4.87$, $p=0.009$), satisfaction of nursing ($F=6.47$, $p=0.000$) and mental health.

3. There was positively significant partial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mental health ($r=0.52$, $p=0.000$).

The higher spiritual well-being score and the higher mental health was supported.

4. The mean score on the spiritual well-being scale was 3.48 ± 0.64 .

The mean score on the mental health scale was 3.67 ± 0.54 .

Viewing that, The type of religion, absence of faith, effect of religion on life style, and grade contributed significantly in spiritual well-being for nursing students.

Key words : Spiritual well-being, Mental health